

CHURCH GROWTH

월간 교회성장

2024.10.



바로접속 QR코드

특집

성경 리트릿(RETREAT)

교회 성경공부

성경공부, 깨달음에서 행함으로 _ 이대희 목사
전 세대가 성경을 배우는 교회 _ 이상일 목사
소그룹 다이나믹스 _ 엄태욱 목사

성경공부 시스템

어? 성경이 읽어지네! _ 이애실 원장
성경 파노라마 _ 신현빈 목사
한나미니스트리 _ 오미운 대표

오피니언 리더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새로운 길을 여는 신길교회”

CEO 인 포커스 생명을 살리는 기업, (주)다본다
문화 Take out 한국 양궁에서 배우는 교회성장의 지혜
이달의 설교주제 신앙생활
사역자교안 기도훈련학교 1, 2강

CONTENTS



COLUMN

- 015 희망을 여는 창
이영훈 목사(본지 발행인)

OPINION LEADER

- 018 “새로운 길을 여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PERSPECTIVE

특집 “성경 리트릿(RETREAT)”

- 036 Intro. | 편집부

Part 1. 교회 성경공부

- 038 성경공부, 깨달음에서 행함으로
이대희 목사(예즈덤성경교육연구소 소장)

- 054 전 세대가 성경을 배우는 교회
이상일 목사(군산삼학교회)

- 066 소그룹 다이내믹스
엄태욱 목사(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Part 2. 성경공부 시스템

- 076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이애실 원장(생터성경사역원)

- 088 성경 파노라마
신현빈 목사(디모데성경연구원 대표총무)

- 100 한나미니스트리
오미운 대표(한나미니스트리)

- 110 Outro. | 편집부

CEO IN FOCUS

114 생명을 살리는 기업, (주)다본다

윤민경 대표((주)다본다)

MISSION

126 미션 | 이상훈 총장(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평신도와 함께 읽는 선교적 교회

6. 선교적 교회의 심장: 제자도

MINISTRY GUIDE

138 교회고민상담 |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일과 영성

사회 참여

142 신학연장교육(TEE) | 김동수 교수(평택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

6.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행 12:1-5)

152 AI 활용 목회 | 이도복 목사(충신교회 교육총괄)

인공지능 ChatGPT 활용법 5:

교회 웹사이트 콘텐츠 업그레이드

160 영혼의 쉼터 | 김덕겸 목사(사랑장로교회)

결승선(決勝線)

CULTURE

162 목회와 인문학 | 이강선 교수(성균관대, 기독교인문학연구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화형당한

‘하나님의 순한 순교자’,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168 문화 Take out | 강진구 교수(고신대)

한국 양궁에서 배우는 교회성장의 지혜

CONTENTS

SERMON

- 180 설교 준비 노하우
황성은 목사(오메가교회)
-

주일예배(이달의 주제: 신앙생활)

- 184 1주차 | 이상화 목사(서현교회)
구원의 확신 그 이후
- 198 2주차 | 이은상 목사(세미한교회)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 어떻게 사나?
- 212 3주차 | 주진 목사(세한교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 224 4주차 |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

수요예배

- 236 1주차 |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에베소서 강해 1
은혜와 평강이라는 선물
- 246 2주차 |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에베소서 강해 2
찬송이 되는 삶으로
- 256 3주차 |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에베소서 강해 3
이런 교회 어떠세요?
- 266 4주차 |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에베소서 강해 4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

금요일예배

- 276 1주차 |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 288 2주차 |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내가 너를 안다
- 300 3주차 |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 312 4주차 |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오라, 앉으라, 머물라
-

다음세대

- 326 유치부 | 노신애 전도사(향동교회)
하나님의 멋진 계획에 따라 살아가요
- 332 유초등부 | 박준우 목사(동행교회)
깨어 있으라!
- 336 중고등부 | 박신웅 목사(높은뜻정의교회)
엘리멘탈
- 342 청년부 | 박기범 목사(내수동교회)
한 사람을 위한 걸음



Cover

발행인 | 대표이사 이영훈
편집인 | 원장 홍영기

EDITORIAL

편집장 | 방현미
편 집 | 이하늘 이지현 강민
대외협력 | 방현미
회원관리 | 강민
디자인 | 유혜연 김한희
사진 제공 | 국민일보 순복음가족신문
제 보 | editcg@daum.net

발행처 | 세계교회성장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59 영산복지센터 4층
전 화 | 02) 2036-7914
팩 스 | 02) 2036-7910
웹주소 | <https://portal.icg21.com>
쇼핑몰 | www.pastor21.net

등록일 | 2002년 5월 8일
등록번호 | 문화 라 09098
통권 376호

협력업체 | 명지북프린팅, 국민 P&R, 아림디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골 3:23)

세계교회성장연구원은 한국의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목회자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법인이사

김두영 박경표 신범섭 안병광

운영이사

곽주환 목사(베다니교회)
권일두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이천순복음교회)
김용준 목사(순복음도봉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김정민 목사(금란교회)
김해동 목사(거제순복음교회)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엄태욱 목사(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정재우 목사(은혜의정원교회)
정홍은 목사(순복음성동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황선욱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후원이사

곽승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권준호 목사(송전교회)
김종수 목사(섬기는교회)
김종진 목사(한밭제일교회)
배창돈 목사(평택대광교회)
백용석 목사(강남교회)
윤장희 목사(풍성한교회)
이동현 목사(복된이웃교회)
이요한 목사(수원순복음교회)
이중관 목사(익산샘물교회)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조준철 목사(만리현성결교회)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하근수 목사(동탄시온교회)

전 세대가 성경을 배우는 교회

글 이상일 목사(군산삼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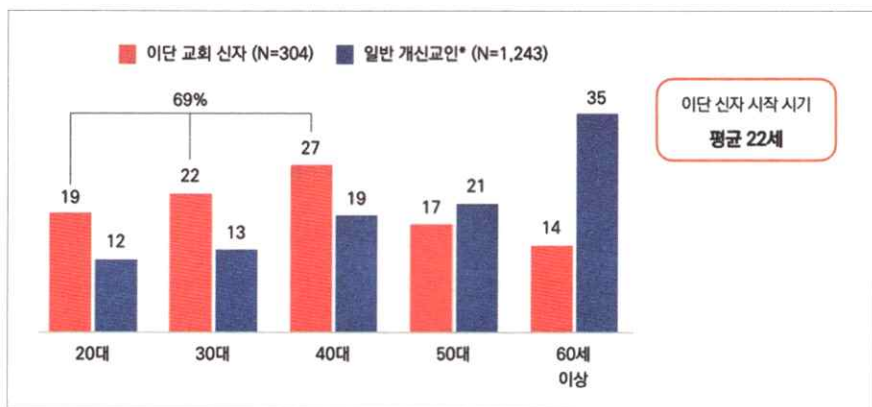
들어가는 말

우리 신앙인들이 가는 믿음의 길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단'이다. 다를 이(異), 끝 단(端). 처음에 언뜻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다.

2023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 약 545만 명인데,¹⁾ 그중 6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이단에 출석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단의 주류를 이루는 연령대가 20~40대이고, 이들이 처음 이단에 빠지는 시기가 평균 22세라는 점이다. 이 통계는 자녀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청년이 되는 시기에 이단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매우 심각한 통계다. 어쩌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러한 현

1)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2



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필자는 ‘전 세대의 전권 성경 교육’을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 교회의 현실

성도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단의 종류와 문제점에 대해 알려주고 외부에서 성경공부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그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마르고 닳도록 익히는 건 수많은 위조지폐의 종류와 문제점이 아니라, 원본 그 자체라는 점을 기억하자.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성경을 가르쳐주겠다던 신천지의 무료 성경신학원에 그토록 많이 미혹된 것 아니겠는가?

필자가 20여 년간의 사역과 집회의 현장에서 만난 성도 중 66권의 성경을 모두 읽어본 성도는 극히 적었으며, 66권의 성경을 모두 배워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66권의 성경을 모두 다 배워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성도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성도는 성경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접할 뿐, '성경'이라는 오리지널 텍스트 전체를 직접 대하는 일이 매우 적다. 새해가 되면 야심 차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만,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을 만나면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고, '레위기'에 접어들면 그야말로 '내 위기'를 만나게 된다. 애를 쓰며 성경을 읽어보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니 점점 고개는 숙여지고, 결국 잠에 빠져 성경에 세계 선교 지도를 그린 후에야 의식을 되찾기를 거듭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다시 결단을 하지만 읽다가, 자다가, 졸다가, 말다가 하는 중도 포기의 반복이다.

신앙생활을 오래하여 아담과 하와,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 이야기와 같은 유명한 본문을 여기저기 조금씩 들어본 풍월은 있다. 그러나 평생 들은 설교 본문을 모아봐도 66권의 성경 전체가 나오지 않는다. 교회에서 성경 한 권을 붙들고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모스, 나훔, 오바다 등, 평소에 거의 접하지 않는 성경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단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대부분은 예언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본문을 가지고 접근해 온다. 그러면 성도들은 평소에 거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보니 분별하지 못하여 속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연대기 순으로 1권도 빠짐없이 장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가르쳐야 한다.

2. 군산삼학교회의 성경공부 3가지

위조지폐 감별사가 진본을 완벽에 가깝게 익히면 그와 다른 위조지폐들이 분별되는 것처럼, 필자는 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66권의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거의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필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에 인생을 걸었다.

그래서 현재 장년 성도들에게는 3가지 트랙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2가지 단기 코스가 있다.

각각 5주에 걸쳐서 진행하는 ‘신·구약의 파노라마’와 52주 안에 66권 전체를 연대기 순으로 가르치는 ‘이상일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강좌’가 그것이다.



총 10주 과정인 신·구약의 파노라마는 외부에서 집회 요청을 받을 때도 나누는 성경 특강인데, 예언서의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루다 보니 짧은 시

간에도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

또한 1년 과정의 성경강좌는 66권 전체를 모두 연대기 순으로 배열하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중점으로 살펴 가는데, 이와 같은 성경 교육은 성도들이 66권 전체의 주요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데 효과가 좋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코스 외에,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예배 시간마다, 함께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가르치는 강해 설교가 있다. 66권 전체를 대하드라마처럼 강해한다고 해서 ‘대하설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군산 삼학교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 중심의 목회를 지향하고 있다.

3. 성경공부의 효과

52주 과정의 성경강좌를 수료한 분들에게 받았던 수료 소감문을 읽어보면, 분명한 변화가 관찰된다. <<http://www.gssh.org/Board/Index/9956>>

①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66권을 모두 배운 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② 자기 뜻과 소원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66권을 모두 배운 후에는 자기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③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66권을 모두 배운 후에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고, ④ 이전에는 자기 비전을 위해 살던 사람이 66권을 모두 배운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애쓰고, 찾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겠다고 다짐하고, ⑤ 위로를 얻고 싶어서 성경을 읽던 사람이 66권을 모두 배운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가며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고백이 가득하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는 눈을 뜨자, 말씀으로 더 깊이 다가가게 된 것이다.

‘부흥(Revival)’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회복’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신앙의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된 이 현상은 분명 ‘부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50년 교회 다녀도 성장이 드물던 성도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필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말씀 전체를 빠짐없이 배우고 이해하며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소감문에 있다. 성경강좌 수료생들의 소감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뭐냐면, ‘태어나서 66권 전체를 배워본 게 처음이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었다.’, ‘성경을 모두 배우고 나니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다.

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겠는가? 성도들이 자주 접하기 어려운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든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배워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언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역사서의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서 한 권씩, 한 권씩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해오신 그 수많은 노력과 인간들의 끝없는 불순종,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픈

교육부서
커리큘럼

“21세기
성경을 배우는 교회”

“우리는 성경을 즐기면서 배워요”

교육부서
오감활동

오감성경 소개

PROGRAM

오감성경이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5가지 감각을 활용한, 활동적인 성경프로그램입니다.

- 나만의 심계명 출판 만들어보기
- 다양한 성경 카드게임들
- 무교병과 예수라기 사식회
- 성경블록 게임
- 성경젠가 게임

- 성서지리 게임
- 인수기 12지파행진
- 성막 만들기
- 이스라엘 입체지도 만들기
- 시나산언의 꾸미기
- 예수님의 생애 그려보기 등

심정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철 들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렇다. 신앙의 ‘철이 든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다.

4.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자 (3년 커리큘럼)

군산삼학교회 성도들이 많이 하는 고백 중 하나가 무엇이나면 이런 내용을 나이 먹고 이제야 배우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공감하는 바였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알고 있었다면 ‘나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셨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그래서 군산삼학교회는 교회는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

지, 모든 학생에게도 66권의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친다. ‘아이들이 성경을 다 배울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다 배우고 이해한다.

군산삼학교회는 유치부 아이들부터 고3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에게 3년 과정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치고 있다. 3년이면 한 번의 사이클이 순환하게 되는데, 1년 차에는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8권을 배우고, 2년 차에는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 31권을 배운다. 그리고 3년 차에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배우면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4년 차가 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각 연령별 수준에 맞게 반복하여 교육한다. 상급 부서로 진학을 하더라도 연초에는 모든 교육 부서가 모두 동일한 본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진도 문제도 없다. 그러면 4세 때부터 교육받은 아이가 20세 청년이 될 때쯤이면 66권의 성경 전체를 5회 이상 교육받게 된다. 말씀 위에 탄탄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5. 아이들에게는 오감으로 재미있게 가르치자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아이들이 주야장천 성경만 배운다면 듣기는 하겠는가? 그래서 특별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군산삼학교회에서는 오감을 활용한 성경 레크리에이션을 활용하여 가르치고 있다.



오감 활동이란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까지, 총 5가지 감각을 모두 활용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다.²⁾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을 배울 때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수입한 무교병을 먹어보고,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배울 때는 메추라기도 먹어보고, 진 편성을 배울 때는 실제로 대형을 갖추어 서보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나 성막을 배울 때는 모형을 직접 만들어본다.



이런 오감 활동을 도입하면 아이들도 너무 재미있어하면서 성경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가족오락관의 게임 방식을 차용해서 다양한 성경 퀴즈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문제를 맞힐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설교 시간의 집중도도 많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놀다 보면 성경의 내용이 익혀지는 것이 '오감 성경'이다.

2) <https://www.youtube.com/watch?v=HRdIF-Nccyo>

놀라운 것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심어주니까 기도도 뜨거워졌다는 점이다. 오감성경학교를 할 때면,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성경만 다뤘다. 성경 가지고 놀고, 성경 말씀 배운 게 다였다. 감성 터치할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 충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성경 학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불과 4년 만에 출석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하였고, 특별히 아이들의 출석 규모가 9배 가까이 성장하여, 공간이 부족하여 교육관까지 매입하게 된 것이다.

초등부 대하설교 & 오감활동

<http://www.gssh.org/Board/Index/3760>

(66권을 설교한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에 모두 올려 두었습니다.)

맺는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성경 중심으로 양육을 받아서 20세만 되어도 성경 전체를 훤히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청년으로 세워진다면, 그러한 청년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고민을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까? ‘뭘 해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최소한 이단에게 속아서 미혹 당할 걱정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게 되지

않겠는가? 필자는 한국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다음세대가 많이 나와서 법조계를 바꾸고, 기업 문화를 바꾸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목회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신학교도 모두 미달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출산율로도 이런 상황이니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교를 선택하는 20년 후에는 신학교의 지원율이 어떻게 될까? 20년 후의 신학생들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될 40년 후의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떠할까? 66권의 말씀으로 무장된 진실한 목회자를 찾는 일이 쉬워질까? 더 어려워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준비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양육 받고 단련된 그런 목회자를 많이 배출해서 30년 후의 한국 교회를 준비해야 한다.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❷

이상일 목사

성경대학교에서 신학(학사, B. A.)을 전공했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M. Div.)을 공부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Ed. M.)을 공부하던 중, 부산 대연교회(담임: 임석웅 목사)의 청빙을 받아 8년간 초등부와 장년 교구를 섬겼다. 서울신대 설교대학원에서 설교학(Th. M.)을 전공했고, 현재는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성서학 박사과정(Th. D.)중에 있으며, 현재, 전북극동방송 성경강좌 강사 및 군산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